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14, Vol. 27, No. 1, 1-18

학령전기 아동의 연령, 성별, 의도적 통제에 따른 친사회적 거짓말의 차이*

강 현 경 —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박 영 신† — 경북대학교

3세~6세 아동,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연령, 성별과 의도적 통제에 따른 친사회적 거짓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친사회적 거짓말은 그림을 사용한 이야기로 측정하였고, 의도적 통제는 Kochanska의 베터리와 유아기질척도(Child Behavior Questionnaire)를 사용한 부모용과 교사용 척도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친사회적 거짓말은 연령에 따라 5세와 6세에 특히 많이 증가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서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적 거짓말을 더 많이 하였으나 이런 경향은 부모보다 할머니와 같은 손위 사람이나 친구에게 더 두드러졌다. 아동용 베터리와 교사용 척도로 측정한 의도적 통제는 친사회적 거짓말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연령을 통제하였을 때 아동용 베터리, 부모용과 교사용 척도로 측정한 의도적 통제는 친사회적 거짓말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나 의도적 통제를 구성하는 기질의 하위요인들이 친사회적 거짓말을 예측하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부모용 척도의 강도 낮은 자극 선호와 지각 민감성이 친사회적 거짓말을 예측하여서 아동이 낮은 강도의 자극을 좋아하고, 변화에 민감하지 않을수록 친사회적 거짓말을 더 많이 하였다.

주요어 : 친사회적 거짓말, 의도적 통제, Kochanska의 베터리, 유아기질척도, 학령전기 아동

---

* 이 논문의 일부는 2012년 한국발달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포스터로 발표되었음.
이 논문은 2012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교신저자: 박영신,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E-mail: yoshpark@knu.ac.kr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실망, 불만, 분노와 같은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잘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못 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주변 사람에게 나쁜 평가를 받거나,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심지어 인간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다. 여러 문화에는 이런 부정적 정서를 어떤 상황에서 표현하고 어떤 상황에서 표현해서 안 되는지를 명시하는 다양한 정서표현규칙이 존재하는데 아동들은 이런 규칙을 배우고 이런 규칙에 준하여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배워야 유능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

정서표현규칙과 관련되는 흥미로운 행동 가운데 하나는 선의의 거짓말로도 불리는 친사회적 거짓말이다. 친사회적 거짓말은 자기 이익을 도모하거나 나쁜 짓을 은폐하려는 부정적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반사회적 거짓말과 달리 타인의 기분이나 감정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긍정적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짓말이다(Bussey, 1999; Gnepp & Hess, 1986). 예를 들어, 친구의 간섭이 귀찮아도 고맙다고 하거나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마음에 든다고 말하는 것 등이다. 성인들은 필요할 때 친사회적 거짓말을 하고 친사회적 거짓말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권은영, 이현진, 2012; 우남희, 이은정, 2004; Fu, Lee, Cameron, & Xu, 2001), 친사회적 거짓말을 잘 하는 아동들을 사회적으로 더 유능하다고 보았다(Jones, Abbey, & Cumberland, 1998; Liew, Eisenberg, & Reiser, 2004; McDowell, O'Neil, & Parke, 2000).

친사회적 거짓말은 발달과정에서 비교적 일찍 나타난다. 코에 루즈 자국이 있는 실험자가 사진을 찍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괜찮은지 물어보자 대부분의 3세~7세 아동들은 괜찮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다(Talwar & Lee, 2002). 비슷하게 실험자에게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3세~5세 아동 72%, 6세~8세 아동 80%, 9세~11세 아동 84%가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Talwar, Murphy, & Lee, 2007).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3세 아동 23%, 4세 아동 32%, 5세 아동 76%, 6세 아동 71%도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마음에 든다고 하였다(이효정, 2010). 즉, 3세, 4세에는 30% 정도가 친사회적 거짓말을 하였는데 5세, 6세에는 70% 정도로 두 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남을 배려하여 자신이 실제 느낀 정서나 감정을 감추는 친사회적 거짓말은 학령전기부터 나타나서 5세와 6세에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친사회적 거짓말의 산출과 더불어 친사회적 거짓말에 대한 이해도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7세~11세 아동들도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가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Heyman, Sweet, & Lee, 2009; Ma, Xu, Heyman, & Lee, 2011). 우리나라 아동들도 7세 정도가 되면 친사회적 거짓말을 반사회적 거짓말보다 덜 나쁘다고 보았다(권은영, 이현진, 2012; 선미정, 2005). 마찬가지로 8세나 11세 아동들도 친사회적 거짓말을 한 사람을 반사회적 거짓말을 한 사람보다 덜 나쁘게 평가했다(Bussey, 1999). 비록 예외는 있었지만(Walper & Valtin, 1992) 이런 연구들은 아동들이 7세 정도가 되면 친사회적 거짓말을 긍정적으로 여기면서 반사회적 거짓말과 구분되는 친사회적 거짓말의 특성을 이해함을 보여준다.

아동들의 친사회적 거짓말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실망스러운 선물을 받았을 때 남아와 여아가 비슷하게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강동아, 2011; Talwar & Lee, 2002; Talwar et al., 2007). 그러나 얼굴표정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받았을 때 여아가 남아보다 긍정적 표정을 더 많이 지었고 남아는 여아보다 부정적 표정을 더 많이 지었다(Cole, 1986; Davis, 1995; Saarni, 1984; Tobin & Graziano, 2011). 이처럼 남아와 여아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자신의 실제 정서나 감정을 감추는 정도는 친사회적 거짓말보다 얼굴표정에서 더 크게 차이가 났다.

그런데 친사회적 거짓말의 산출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단 한 번의 시행에서 실험자처럼 낯선 사람이 아동이 싫어할만한 선물을 준 다음 마음에 드는지를 물어보는 절차를 사용하였다. 이런 절차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단 한 번의 시행으로는 아동이 친사회적 거짓말을 하는 경향을 신뢰롭게 측정하기 어렵다. 둘째,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게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동에게 너무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아동들이 친사회적 거짓말을 하는 경향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실제 아동들은 부모보다 낯선 사람에게 친사회적 거짓말을 더 많이 하였다(Williams, Kirmayer, Simon, & Talwar, 2013). 따라서 여러 시행에 걸쳐서 사회적 부담이 적은 상황에서 친사회적 거짓말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아동들의 친사회적 거짓말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긍정적 정서표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만(Jones et al., 1998; Popliger, Talwar, & Crossman, 2011),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부모의 지시나(Talwar et al., 2007),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태도는 아동들이 친사회적 거짓말을 더 많이 하도록 하였다(Popliger et al., 2011). 아동의 개인적 특성도 중요하여서 틀린 믿음을 잘 이해하는 아동들이 친사회적 거짓말을 더 잘 하였다(이효정, 2010). 이 밖에 친사회적 거짓말과 관련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아동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의도적 통제(effortful control)이다. 의도적 통제는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기질적인 자기조절 능력으로 “즉각적 반응(dominant response)을 억제하고, 대안적 반응(subdominant response)을 활성화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수를 파악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Rothbart, 2007; Rothbart & Bates, 2006; Rothbart & Rueda, 2005). 즉, 의도적 통제는 자발적으로 주의와 행동을 억제하거나 활성화하거나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집행기능이 있는데 최근 들어 의도적 통제와 집행기능의 유사성, 차별성, 그리고 두 개념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의도적 통제는 사회정서 발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기질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개념으로 집행기능과 달리 감정이나 정서가 적재된 상황에서의 자기조절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Liew, 2012; Zhou, Chen & Main, 2012).

의도적 통제는 행동적 방법이나 질문지 방법으로 많이 측정된다. 행동적 방법의 대표적 예는 Kochanska가 개발한 복합과제 베터리이다(Kochanska & Knaack, 2003; Kochanska, Murray, & Harlan, 2000; Murray & Kochanska, 2002). 이 베터리에서는 기다리기(예, 정해진 시간까지 사탕 꺼내지 않고 기다리기), 신체활동 늦추기(예, 줄 따라 걷기), 신호에 따라 행동을 시작

하거나 억제하기(예, 어떤 신호가 나오면 특정 행동을 하고, 다른 신호가 나오면 그 행동을 억제하기), 의도적 주의(예, 스트룹 과제와 같이 자극의 중요한 지각적 특성은 무시하고 다른 특성에 따라 반응하기), 목소리 낮추기(예, 속삭이기) 등을 측정하는데 모든 과제에서 아동이 상황의 요구에 따라 즉각적 반응을 억제하고 대안적 반응을 해야 한다.

질문지 방법에서는 3세～8세 아동의 기질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유아기질척도(Child Behavior Questionnaire)(Rothbart, Ahadi, Hersey, & Fisher, 2001)와 단축형(Putnam & Rothbart, 2006)이 많이 사용된다. 이 척도는 1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여러 요인분석 연구에서 외향성, 부정적 정서성과 의도적 통제의 세 요인이 추출되었다(Rothbart, Ahadi, Hershey, & Fisher, 2001). 특히 의도적 통제에는 주의통제(attention control), 억제통제(inhibitory control), 강도 낮은 자극 선호(low-intensity pleasure), 지각 민감성(perceptual sensitivity)의 네 하위요인이 일관성 있게 높은 요인 부하량을 보였기 때문에 부모를 통한 아동의 의도적 통제의 평가에는 주로 이 네 요인이 사용된다(Putnam & Rothbart, 2006; Rothbart, 2007; Rothbart et al., 2001). 일부 연구에서는 미소와 웃음의 하위요인을 더 포함시켜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기도 한다(배윤진, 2011; Gusdorf, Karreman, van Aken, Deković, & van Tuijl, 2011; Rothbart et al., 2001; Simonds, Kieras, Rueda, & Rothbart, 2007). 주의통제는 과제와 관련된 정보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뿐 아니라 필요할 때 주의를 옮기는 정도, 억제통제는 부적절한 반응을 억제하고 미래 행동을 계획하는 정도, 강도 낮은 자극 선호는 강도, 속도, 복잡성과 불일치가 작은 활동이나 자극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 지각 민감성은 환경 속의 미세하고, 강도가 낮은 자극을 탐지하고 지각하고, 의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의도적 통제는 도덕성(Kochanska & Knaack, 2003), 사회적 유능감(Eisenberg, Pidada, & Liew, 2001),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Eisenberg & Spinrad, 2004)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능력이나 아동의 내재화 문제(Dennis, Brotman, Huang, & Gouley, 2007; Lemery-Chalfant, Doelger, & Goldsmith, 2008)나 외현화 문제(Kochanska, Barry, Aksan, & Boldt, 2008; Olson, Sameroff, Kerr, Lopez, & Wellman, 2005; Nigg, Goldsmith, & Sachek, 2004)와 같은 다양한 행동상의 문제와 관련되지만 특히 정서표현, 정서조절이나 통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장혜인, 2010; Eisenberg, Hofer, & Vaughan, 2007; Eisenberg, Smith, & Spinrad, 2011). 실제 의도적 통제는 3세～4세 아동이 실망스러운 선물을 받고 보이는 얼굴표정에 영향을 미쳐서 의도적 통제를 잘 하는 아동들은 긍정적 표정을 많이 보였을 뿐 아니라(Kieras, Tobin, Graziano, & Rothbart, 2005), 부정적 표정을 덜 보였다(Liew et al., 2004). 마찬가지로 의도적 통제의 하위요인들도 아동의 얼굴표정의 통제에 의미있게 영향을 미쳤다. 즉, 갈등을 유발하는 자극이 있는 과제에서 주의를 잘 통제하여 방해를 덜 받았던 7～10세 아동들이 실망스런 선물을 받았을 때 미소를 더 자주 또 더 오랫동안 지었을 뿐 아니라(Simonds 등, 2007), 억제통제를 잘 하였던 3세～5세 아동들이 실망스런 선물을 받고 부정적 표현을 덜 보였고 이런 관계는 연령과 언어능력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Carlson & Wang, 2007; Libermann, Giesbrecht, & Müller, 2007).

그러나 부모가 평가한 의도적 통제가 6세 아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받고 마음에 든다고 말하는 경향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힌 한 연구(강동아, 2011)를 제외하고는 의도적 통제가 언어적인 친사회적 거짓말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의도적 통제는 친사회적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어, 원하지 않는 선물을 받았을 때 즉각적 반응은 선물을 준 사람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고 대안적 반응은 마음에 든다고 말하는 것이다.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아동은 자신이 느낀 실망감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은 경향을 억누르고 마음에 든다고 말해야 하므로 정서나 행동의 조절이나 통제와 관련되는 의도적 통제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논의하였던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개선하여 우리나라 아동들에서 친사회적 거짓말이 어떻게 발달하고, 의도적 통제가 언어적 친사회적 거짓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우선 친사회적 거짓말을 일회적으로 측정하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여러 개의 이야기를 통해 좀 더 신뢰롭게 측정하여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의도적 통제가 얼굴표정을 통한 정서의 은폐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친사회적 거짓말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의도적 통제를 아동에게 측정하거나 부모에게 평정하게 하는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친사회적 거짓말과의 관련성을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의도적 통제의 하위요인인 주의통제와 억제통제가 얼굴표정을 통한 정서의 은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통제의 하위요인들이 친사회적 거짓말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연령과 성별에 따라 친사회적 거짓말에 차이가 있는지 둘째, 의도적 통제와 하위요인들이 친사회적 거짓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지, 셋째, 의도적 통제와 하위요인들이 친사회적 거짓말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D광역시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만 3~6세의 아동 86명, 그들의 부모와 교사가 참여하였다. 3세는 22명(남아 12명, 여아 10명), 4세는 17명(남아 12명, 여아 5명), 5세는 23명(남아 11명, 여아 12명), 6세는 24명(남아 13명, 여아 11명)이었다. 출생순위는 첫째가 47.7%, 둘째가 45.3%로 대부분이었다. 아버지는 36세부터 40세 미만이 40.7%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는 30세부터 35세 미만이 44.2%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 대졸이 60%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한 달 소득은 200-300만원이 35% 정도로 가장 많았다.

측정도구 및 절차

여자 대학원생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독립적이고 조용한 공간에서 연구를 실시하였다. 아동이 들어오면 가족관계, 또래관계에 대해 간단한 대화를 나누면서 라포를 형성하였다. 라포가 형성되면 의도적 통제 베터리를 먼저 실시한 다음 친사회적 거짓말 과제를 실시하였다. 두 과제에 약 20~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부모용과 교사용 의도적 통제 척도는 미리 배부하였다가 아동연구가 끝난 다음에 회수하였다.

친사회적 거짓말

Happe(1994)와 Bussey(1999)가 고안한 이야기를 한국 아동에게 맞게 수정한 이야기를(선미정, 2005; 손은경, 2001)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다시 수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주인공이 친사회적 거짓말을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동에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의 주인공에 아동의 이름을 넣어서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 아동이 친사회적 거짓말을 할지, 진실을 말할지를 선택하도록 수정하였다. 할머니와 빵, 엄마와 김밥, 아빠와 선물, 엄마와 스티커, 친구와 안경, 친구와 미용실에 대한 6개의 이야기를 사용하였고 각 이야기는 주인공이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나 친구에게 친사회적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것이었다. 이야기의 예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주인공의 이름에 참가한 아동의 이름을 넣어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 "○○는 맛있다고 대답할 거야? 맛없다고 대답할 거야?"라고 질문한다. 만약 맛있다고 하면 "○○이의 진짜 속마음은 어땠을까?"라고 질문하였다. 아동이 첫 번째 질문에서 "맛있다"고 대답하고 두 번째 질문에서 "맛이 없어요"라고 대답하면 친사회적 거짓말로 간주하였다. 친사회적 거짓말에 1점을 주어서 가능한 총점은 0점~6점이었다. 총 소요 시간은 10분~15분 정도였다. 이 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2였다.

의도적 통제

아동의 의도적 통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아동들에게 의도적 통제 베터리를 실시하였고, 부모와 교사에게 의도적 통제 척도를 실시하였다.

의도적 통제 베터리

영아기에서 학령기까지 아동의 의도적 통제

표 1. 친사회적 거짓말 과제의 이야기 예

할머니께서 ○○에게 빵을 만들어 주셨어. 빵을 먹어보았더니 너무 맛이 없었어. 할머니께서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셨어. ○○이는 뭐라고 대답할거야? "맛있어요"라고 대답할거야? "맛없어요."라고 대답할거야?
○○는 생일선물로 로봇을 받고 싶었어. 그런데 아빠가 생일선물로 책을 주셨어. 아빠가 ○○에게 선물이 마음에 드는지 물어보셨어. ○○이는 뭐라고 대답할거야? "마음에 들어요"라고 대답할거야? "마음에 들지 않아요."라고 대답할거야?
친구가 어린이집/유치원에 안경을 끼고 왔어. ○○는 그 안경이 친구에게 정말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친구가 ○○에게 안경이 어떠냐고 물어보았어. ○○는 뭐라고 대답할거야? "예뻐"라고 대답할거야, "이상해"라고 대답할거야?

를 측정하기 위해 Kochanska 등(2000)이 고안한 의도적 통제 베터리를 배윤진(2011)이 수정한 절차 가운데 간식지연 과제, 토끼와 거북이 과제와 적록신호 과제를 사용하였다. 간식지연과제는 아동이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을 평가하고, 토끼와 거북이 과제는 아동이 자신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적록신호 과제는 아동이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을 억제하고 시작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모든 아동들에게 간식지연 과제, 토끼와 거북이 과제, 적록신호 과제의 순서로 실시하였고 전체 소요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였다. 의도적 통제의 총점은 각 과제에서의 아동의 점수를 z 점수로 변환한 다음 세 과제의 z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각 과제의 점수나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의도적 통제를 잘함을 의미한다.

간식지연 과제. 연구자가 아동과 마주 앉아서 투명한 유리컵 안에 초콜릿이나 사탕을 넣고 연구자가 종을 울리면 먹을 수 있다고 설명한 다음 책상 위에 손을 올리고 기다리게 하였다.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10초, 20초, 30초, 15초로 다르게 하여 총 네 시행을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종을 들기 전에 사탕을 가져가서 먹으면 0점, 연구자가 종을 들기 전에 사탕을 가지고 가면 1점, 연구자가 종을 들기 전에 책상에서 손을 완전히 떼면 2점, 연구자가 종을 들기 전에 책상에서 손가락을 떼면 3점, 연구자가 종소리를 들려줄 때까지 기다리면 4점이었다.

토끼와 거북이 과제. 집으로 가는 길이 그려진 A4 크기의 선 긋기 용지와 토끼와 거북이 모형을 끼운 색연필을 사용하였다. 연구자가 아동에게 토끼는 집까지 정말 빨리 간다고 설명하며 집까지 빨리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북이는 집까지 정말 느리게 간다고 설명하며 집까지 느리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동이 과제를 이해하면 토끼와 거북이 모형이 달린 색연필을 주고 선 긋기 용지에 그려진 길을 따라 선을 그으며 토끼일 때에는 빨리, 거북이일 때에는 천천히 집으로 가도록 지시하였다. 토끼와 거북이로 각각 두 번의 시행을 실시하였다. 점수는 토끼 시행과 거북이 시행에서 이동 시간의 차이로 계산하였다.

적록 신호과제. 연구자가 초록색 카드를 들면 연구자와 같은 쪽 손을 들고, 빨간색 카드를 들면 반대쪽 손을 들어야 하고 가능한 빨리 손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아동이 초록색 카드와 빨간 색 카드 모두에 대해 성공할 때까지 연습을 한 후, 초록색과 빨간색 카드로 각각 10번의 시행을 실시하였다. 손을 잘 못 들거나 두 손을 모두 들거나 어느 손도 들지 않으면 0점, 손을 잘못 들었다가 바꾸면 1점, 손을 살짝 잘못 들었다가 바꾸면 2점, 손을 바르게 들면 3점이었다.

의도적 통제 척도

배윤진(2011)이 번안한 유아기질척도의 의도적 통제에 해당하는 32문항(주의통제 6문항, 억제통제 6문항, 강도 낮은 자극 선호 8문항, 지각 민감성 6문항, 미소와 웃음 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미소와 웃음 요인은 의도적 통제 요인과 다른 요인들에 비슷한 정도의 요인 부하량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Putrnam & Rothbart, 2006) 본 연구에서는

네 하위요인으로만 의도적 통제를 측정하였다. 부모용과 교사용 척도는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여 각각 부모와 교사가 해당 아동에 대해 평정하게 하였다. 부모용 척도의 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는 .67,. 73, .69, .80이었고, 교사용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5, .89, .79, .86이었다. 부모용과 교사용 척도의 의도적 통제 점수는 네 하위요인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자료분석

자료는 SPSS program 18.0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친사회적 거짓말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3세와 4세 저연령층과 5세와 6세 고 연령층으로 나누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아동의 의도적 통제, 그 하위요인들과 친사회적 거짓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의도적 통제가 친사회적 거짓말을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령을 통제한 다음 의도적 통제의 세 측정치를 예측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의도적 통제의 어떤 하위요인이 친사회적 거짓말을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의도적 통제의 세 측정치의 하위요인들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연령과 성별에 따른 친사회적 거짓말의 차이

연령, 성별, 이야기에 따른 친사회적 거짓말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가능한 총점 6점과 비교했을 때 아동들의 친사회적 거짓말 점수는 .54~3.13 사이로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연령, 성별, 이야기에 따라 친사회적 거짓말에 차이가 있는지를 2(연령)×2(성별)×6(이야기) 반복측정에 의한 삼원변량분석으로 알아보았다. 연령과 성별은 피험자 간 변인이었고 이야기는 피험자 내 변인이었다. 그 결과, 이야기의 주효과는 없었으나 연령과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1,82)=20.66$, $p<.01$, $F(1, 82)= 4.11$, $p<.05$. 3세와 4세 아동

표 2. 연령, 성별과 이야기에 따른 친사회적 거짓말의 평균과 표준편차

	3세~4세		5세~6세	
이야기	남아	여아	남아	여아
할머니와 빵	.04 (.20)	.40 (.51)	.42 (.50)	.61 (50)
엄마와 김밥	.13 (.34)	.27 (.46)	.54 (.51)	.52 (.51)
아빠와 선물	.08 (.28)	.27 (.46)	.50 (.51)	.26 (.45)
엄마와 스티커	.13 (.34)	.27 (.46)	.42 (.50)	.35 (.49)
친구와 안경	.04 (.20)	.33 (.49)	.50 (.51)	.65 (.49)
친구와 미용실	.13 (.34)	.27 (.46)	.42 (.50)	.74 (.45)
전체	.54 (.72)	1.80 (2.39)	2.79 (2.00)	3.13 (1.89)

들보다 5세와 6세 아동들이 친사회적 거짓말을 더 많이 하였고,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적 거짓말을 더 많이 하였다. 또한 연령×성별 상호작용효과나 연령×이야기 상호작용효과는 없었으나 성별×이야기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F(5, 410) = 2.53$, $p<.05$. 따라서 이야기별로 남아와 여아의 친사회적 거짓말을 비교한 결과, 할머니와 빵(남아 .23; 여아 .53; $t=-2.96$, $df=84$, $p<.01$), 친구와 안경(남아 .27; 여아 .53; $t= -2.48$, $df=84$, $p<.05$), 친구와 미용실(남아 .27; 여아 .55; $t=-2.74$, $df=84$, $p<.01$) 이야기에서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친사회적 거짓말을 더 많이 하였다. 그러나 엄마와 김밥(남아 .33; 여아 .42; $df=84$, $t=-.83$), 아빠와 선물(남아 .29; 여아 .26; $df=84$, $t=.29$), 엄마와 스티커(남아 .27; 여아 .32; $df=84$, $t=-.45$) 이야기에서는 여아들과 남아들의 친사회적 거짓말에 차이가 없었다.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친사회적 거짓말을 더 많이 하였지만 이런 경향은 할머니와 같은 손위 어른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주로 나타났고 부모와 같이 친숙하고 편안한 관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의도적 통제의 차이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의도적 통제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아동용 베터리의 세 과제의 점수는 각각 표준화한 다음 합산하여 분석하였으나 표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원점수를 제시하였다. 아동용 베터리, 부모용과 교사용 척도로 측정한 의도적 통제는 모두 연령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어서, $F(1,82)=28.93$, $p<.01$, $F(1,82)=3.70$, $p<.10$, $F(1,82)=11.68$, $p<.01$, 5세~6세 아동들이 3~4세 아동들보다 의도적 통제를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측정치 모두에서 성별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성별 상호작용 효과는 교사용 척도에서만 유의하여 $F(1,82)=4.80$, $p<.01$, 3세~4세 아동들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5세~6세 아동들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의도적 통제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2.82$ $df=45$, $p<.01$. 의도적 통제의 세 측정치가 서로 일치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아동용 베터리로 측정한 의도적 통제는 부모용과 교사용 척도로 측정한 의도적 통제와 의미있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r=.21$, $p<.10$); $r=.26$, $p<.05$), 부모용과 교사용 척도로 측정한 의도적 통제도 서로 상당히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r=.47$, $p<.01$).

의도적 통제와 친사회적 거짓말의 관계

아동용 베터리, 부모용과 교사용 척도로 측

표 3.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의도적 통제의 평균과 표준편차

	3세~4세		5세~6세	
	남아	여아	남아	여아
아동용 베터리	70.64 (18.18)	71.91 (22.35)	90.53 (15.16)	96.99 (28.62)
부모용 척도	138.92 (15.07)	138.33 (19.79)	145.04 (14.53)	145.17 (16.40)
교사용 척도	115.46 (18.57)	114.53 (17.16)	120.63 (22.90)	139.48 (20.34)

표 4. 의도적 통제와 하위요인의 평균, 표준편차와 친사회적 거짓말과의 상관계수

		M	*r*	
			연령	친사회적 거짓말
아동용 베터리	간식지연	15.56 (1.09)	.28**	.23*
	토끼와 거북이	17.76 (22.05)	.43**	.22*
	적록신호과제	50.12 (6.88)	.51**	.42**
	전체	83.46 (24.07)	.60**	.43**
부모용 척도	주의통제	31.61 (4.61)	.07	.05
	억제통제	31.59 (4.86)	.27*	.13
	강도 낮은 자극 선호	43.40 (5.57)	.08	.25*
	지각 민감성	35.58 (4.91)	.33**	.08
	전체	142.20 (16.22)	.23*	.17
교사용 척도	주의통제	28.26 (6.58)	.24*	.18
	억제통제	27.97 (7.07)	.22*	.29**
	강도 낮은 자극 선호	36.72 (6.71)	.21	.21
	지각 민감성	30.19 (5.86)	.36**	.20
	전체	123.16 (22.24)	.30**	.26*

*p<.05 **p<.01

정한 의도적 통제와 하위요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연령, 친사회적 거짓말과의 상관계수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아동용 베터리로 측정한 의도적 통제는 연령, 친사회적 거짓말과 각각 .60(p<.01)과 .43(p<.01)의 상관을 보였고, 교사용 척도로 측정한 의도적 통제는 연령, 친사회적 거짓말과 각각 .30(p<.01)과 .26(p<.05)의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용 척도로 측정한 의도적 통제는 연령과 .23(p<.05)의 상관을 보였다. 하위요인에서는 간식지연 과제로 측정한 만족지연이 친사회적 거짓말과 .23(p<.01), 토끼와 거북이 과제로 측정한 행동조절과 .22(p<.01), 적록신호 과제로 측정한 억제통제와 .42(p<.05)의 상관을 보였다. 또한 부모용 척도의 하위요인 가운데에서는 강도 낮은 자극선호와 .25(p<.05), 교사용 척도의 억제통제와 .29(p<.01)의 상관을 보였다.

의도적 통제와 하위요인들이 친사회적 거짓말에 미치는 영향

의도적 통제가 친사회적 거짓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의도적 통제의 세 측정치를 예측변인으로 하여 세 개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친사회적 거짓말이 연령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회귀분석의 1단계에서 연령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 의도적 통제의 측정치를 투입하였다. 우선 연령은 친사회적 거짓말의 변량 32%를 설명하였다(R^2=.32, p<

표 5. 아동용 베터리, 부모용과 교사용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친사회적 거짓말을 예측한 위계적 회귀분석

	단계	예측요인	β	t	R^2	$\triangle R^2$	$F_{변화량}$
아동용 베터리	1	연령	.57	6.38***	.32	.32	40.69***
	2	연령	.48	4.14***	.34	.02	.92
		간식지연	.04	.43			
		토끼와 거북이	-.01	-.08			
		적록신호	.16	1.45			
부모용 척도	1	연령	.57	6.38***	.32	.32	40.69***
	2	연령	.67	7.55***	.46	.14	5.15**
		주의통제	-.07	-.66			
		억제통제	-.05	-.43			
		강도 낮은 자극 선호	.49	4.27***			
		지각 민감성	-.37	-3.24**			
교사용 척도	1	연령	.57	6.38***	.33	.32	40.69***
	2	연령	.57	6.01***	.38	.06	1.87
		주의통제	-.29	-1.63			
		억제통제	.42	2.29*			
		강도 낮은 자극 선호	.04	.28			
		지각 민감성	-.08	-.64			

* p<.05 ** p<.01 *** p<.001

.001). 그러나 아동용 베터리, 부모용이나 교사용 척도로 측정한 의도적 통제 가운데 어떤 것도 친사회적 거짓말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상관분석에서 친사회적 거짓말과 의미있는 상관을 보였던 아동용 베터리와 교사용 척도로 측정한 의도적 통제도 연령의 영향을 통제하자 예측력을 상실하였다.

이처럼 의도적 통제는 예측력이 없었지만 의도적 통제의 어떤 하위요인이 친사회적 거짓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의도적 통제의 세 측정치의 하위요인들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위와 동일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아동용 베터리와 교사용 척도의 하위요인들은 연령이 친사회적 거짓말을 예측하고 난 다음에도 친사회적 거짓말을 각각 2%와 6% 더 설명하였으나 이런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용 척도의 하위요인들은 연령에 더하여 친사회적 거짓말을 14% 더 설명하였고 이런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riangle R^2$=.14, $F_{변화량}$=5.15, p<.01). 네 하위요인 가운데에서 강도 낮은 자극 선호(t=4.27, p<.001)와 지각적 민감성(t=-3.24, p<.01)의 두 요인이 친사회적 거짓말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강하지 않은 자극이나 상황을 즐기거나 좋아할수록, 또 약하거나 미세한 자극이나 변화에 예민하지 않을수록 친사회적 거짓말을 더 많이 하였다. 다중공선성 여부를 살펴 본 결과, 공차한계는 0.1이상, VIF는 10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만 3세에서 만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친사회적 거짓말의 차이와 의도적 통제가 친사회적 거짓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 중인 8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통해 친사회적 거짓말의 정도를 측정하였고, 의도적 통제는 아동,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사회적 거짓말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다. 3세와 4세 아동들보다 5세와 6세 아동들이 친사회적 거짓말을 더 많이 하였다. 이 결과는 학령전기 아동들에서 친사회적 거짓말이 5세와 6세에 특히 많이 증가한다고 밝힌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였다(이효정, 2010; Kieras 등, 2005; Talwar 등, 2007). 선물을 준 사람에게 직접 친사회적 거짓말을 해야 했던 이효정(2010)의 연구에서는 만 5세에 친사회적 거짓말이 뚜렷하게 증가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5세와 6세에 뚜렷하게 증가하여서 친사회적 거짓말을 측정하는 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발달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친사회적 거짓말은 도덕적 문제라기보다는 모든 문화가 공유하고 있는 정서표현규칙, 즉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부정적 정서의 표현을 자제하는 것과 더 관련된다. 따라서 아동이 이런 정서표현규칙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런 규칙에서 요구하는 바를 실제 실천하는 능력이 발달해야 하기 때문에 만 5세나 6세경에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와 같은 가상적 상황에 대한 아동들의 반응은 친사회적 거짓말이 아니라 단순히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발견한 발달경향은 실제 아동이 친사회적 거짓말을 하는 상황에서 발견한 발달경향과 동일하였다. 또한 친사회적 거짓말 점수의 범위가 상당히 낮아서 6점 만점에 .54~3.13이었는데 단순히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반응이었다면 점수가 이보다 더 높았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은 가상적 상황보다는 실제 어떤 사람에게 친사회적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한 아동들의 친사회적 거짓말은 단순한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반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적 거짓말을 더 많이 하였다. 이 결과는 성별에 따라 친사회적 거짓말에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던 선행연구들과 대조된다(강동아, 2010; 이효정, 2011; Talwar & Lee, 2002; Talwar 등, 2007). 다른 사람의 감정을 덜 배려하는 남아들도 처음 만난 낯선 실험자에게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려웠을 수 있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상적인 인물이 등장하여 이런 사회적 압력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해석과 일치하게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

던 얼굴표정에서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실망감을 더 잘 감추었다(Cole, 1984; Davis, 1995; Tobin & Graziano, 2011). 더 흥미로운 점은 여아들의 친사회적 거짓말은 대상에 따라 달라져서 부모와 같이 허물없고 가까운 대상보다는 할머니와 같이 예의를 차려야 하거나 친구와 같이 감정을 상하지 않아야 하는 대상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 편으로는 여아들이 남아들보다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여 자신의 감정표현을 더 잘 조절함을 시사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사회적 관계에 더 예민한 경향을 반영하는 것 같다. 이러한 대상에 따른 친사회적 거짓말의 차이는 이때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특성으로 앞으로 대상에 따라 아동들의 친사회적 거짓말과 그 발달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더 깊이 있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용 베터리나 교사용 척도로 측정한 의도적 통제는 친사회적 거짓말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연령의 영향을 통제하자 아동용 베터리, 부모용과 교사용 척도로 측정한 의도적 통제는 친사회적 거짓말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런 결과는 아동의 의도적 통제가 얼굴표정을 통한 정서의 은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Kieras 등, 2005)나 어머니가 평가한 의도적 통제가 친사회적 거짓말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강동아, 2011)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불일치는 종속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의도적 통제의 영향을 발견하였던 연구들에서는 아동이 실제 실망스러운 선물을 받고 보이는 얼굴표정이나 친사회적 거짓말을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동은 실제 느낀 실망감을 얼굴표정으로 표현하는 것을 억제하고 긍정적 표정을 지어야 하거나,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은 경향을 억누르고 마음에 든다고 말해야했기 때문에 의도적 통제가 의미있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이 이야기에 나타난 가상적인 상황에 반응했기 때문에 친사회적 거짓말을 하기 위해 억제해야할 부정적 감정이나 정서를 별로 느끼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의도적 통제의 역할이 크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의도적 통제의 하위요인들을 분석하였을 때에도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얼굴표정의 통제와 의미있는 관련성을 보였던 주의통제(Simonds 등, 2007)나 억제통제(Carlson & Wang, 2007; Liebermann 등, 2007)는 아동용 베터리, 부모용과 교사용 척도 어디에서도 친사회적 거짓말을 예측하지 못했다. 오히려 어머니용 척도의 강도 낮은 자극 선호와 지각민감성이 친사회적 거짓말을 잘 예측하였다. 즉, 아동이 약하고, 단순하고, 친숙한 자극이나 활동을 좋아할수록 또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미세하거나 작은 변화에 민감하지 않을수록 친사회적 거짓말을 더 많이 하였다. 예상과는 다른 이런 결과는 기질의 하위요인 가운데에서 정서적 자극에 반응하는 강도가 낮았던 4세～5세 아동들이 원하지 않은 선물을 받으면 긍정적 표정을 더 보였고(Garner & Power, 1996), 성격의 5요인 가운데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와 관련이 있는 친화성이 낮은 5세～10세 아동들이 부정적 표정을 더 많이 보였고(Tobin & Graziano, 2011), 친화성이 높은 성인이 자신의 정서를 잘 통제한다는(Tobin, Graziano, Vanman, & Tassinary, 2000) 연구들과 일관성이 있었다. 즉, 약하거나 순한 자극을 좋아하고, 작은 자극이나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정서적 반응의

강도가 낮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화적인 아동들은 공통적으로 정서적으로 쉽게 각성되거나 흥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절하고,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용이한 것 같다. 본 연구에서처럼 가상적인 이야기를 통해 측정한 아동들의 친사회적 거짓말에는 의도적 통제보다 오히려 아동이 어떤 자극에 의해 쉽게 흥분하거나 각성되지 않는 기질적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용 베터리, 교사용과 부모용 척도로 측정한 의도적 통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용 베터리나 교사용 척도로 측정한 의도적 통제나 하위요인은 친사회적 거짓말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는 아동들의 친사회적 거짓말 점수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았고, 연령이 친사회적 거짓말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현재의 연구 설계 내에서는 의도적 통제의 영향이 드러나기 어려웠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친사회적 거짓말이 많이 나타나는 동일한 연령 집단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의도적 통제의 영향을 재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동아 (2011). 기질, 감성지능, 부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친사회적 거짓말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권은영, 이현진 (2012). 한국아동의 거짓말 유형에 대한 이해, 도덕적 판단, 정서반응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1), 117-133.

배윤진 (2011). 부모의 의도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의도적 통제, 친사회적 행동. 인지적 문제 해결능력간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선미정 (2005). 의사소통맥락에 따른 아동과 어머니의 거짓말에 대한 태도의 차이.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손은경 (2001). 진실과 거짓말에 대한 아동과 어머니의 도덕적 판단능력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우남희, 이은정 (2004). 초등학교 아동과 부모의 거짓행동 경험 및 태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3), 95-115.

이효정 (2010). 아동기 자기보호적, 친사회적 거짓말의 출현 및 그 발달적 관련변인: 타인의 마음이해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장혜인 (2010). 자기조절적 기질로서의 통제노력: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3), 19-35.

Bussey, K. (1999). Children's categorization and evaluation of different type of lies and truths. *Child Development, 70,* 1338-1347.

Carlson, S. M., & Wang, T. S. (2007). Inhibitory control and emotion regulation in preschool. *Cognitive Development, 22,* 489-510.

Cole, P. M. (1986). Children's spontaneous control of facial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309-1321.

Davis, T. L. (1995). Gender differences in masking negative emotions: Ability or motiv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1,* 660-667.

Dennis, T. A., Brotman, L. M., Huang, K. Y., & Gouley, K. K. (2007). Effortful control, social competence, and adjustment problems

in children at risk for psychopathology.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6*, 442-454.

Eisenberg, N., Hofer, C., & Vaughan, J. (2007). Effortful control and its socioemotional consequences. In J. J. Gross (Ed.),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pp.287-306). New York: Guilford Press.

Eisenberg, N., Pidada, S., & Liew, J. (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negative emotionality to Indonesian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2,* 1747-1763.

Eisenberg, N., Smith, C. L., & Spinrad, T. L. (2011). Effortful control: Relations with emotion regulation, adjustment, and socialization in childhood. In K. D. Vohs & R. F. Baumeister(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pp.263-283). New York: Guilford Press.

Eisenberg, N., & Spinrad, T. L. (2004). Emotion-related regulation: Sharpening the definition. *Child Development, 75*, 334-339.

Fu, G., Lee, K., Cameron, C. A., & Xu, F (2001). Chinese and Canadian adults' categorization and evaluation of lie- and truth-telling about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 720-727.

Garner, P. W., & Power, T. G. (1996). Preschoolers' emotional control in the disappointment paradigm and its relations to temperament, emotional knowledge, and family expressiveness. *Child Development, 67*, 1406-1419.

Gnepp, J., & Hess, D. L. (1986). Children's understanding of verbal and facial display rul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103-108.

Gusdorf, L. M. A., Karreman, A., van Aken, M. A. G., Deković, M., & van Tuijl, C. (2011). The structure of effortful control in preschoolers and its relation to externalizing problem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2-634.

Happe, F. G. E. (1994). An advanced test of theory of mind: Understanding of story characters' thoughts and feelings by able autistic, mentally handicapped, and normal children and adult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24,* 129-154.

Heyman, G. D., Sweet, M. A., & Lee, K. (2009). Children's reasoning about lie-telling and truth-telling in politeness contexts. *Social Development, 18*, 728-746.

Jones, D. C., Abbey, B. B., & Cumberland, A. (1998). The development of display rule knowledge: Linkages with family expressions and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69,* 1209-1222.

Kieras, J. E., Tobin, R. M., Graziano, W. G., & Rothbart, M. K. (2005). You can't always get what you want: Effortful control and children's responses to undesirable gifts. *Psychological Science, 16,* 391-396.

Kochanska, G., Barry, R. A., Aksan, N., & Boldt, L. J. (2008). A developmental model of maternal and child contribution to disruptive conduct: The first six year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 1220-1227.

Kochanska, G., & Knaack, A. (2003). Effortful control as a personality characteristic of young children: Antecedents, correlat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Personality, 71,* 1087-1112.

Kochanska, G., Murray, K. T., & Harlan, E. T. (2000). Effortful control in early childhood: Continuity and change, antecedents, and implications for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6,* 220-232.

Lemery-Chalfant, K., Doelger, L., & Goldsmith, H. H. (2008). Genetic relations between effortful and attentional control and symptoms of psychopathology in middle childhood.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7,* 365-385.

Liebermann, D., Giesbrecht, G. F., & Müller, U. (2007). Cognitive and emotional aspects of self-regulation in preschoolers. *Cognitive Development, 22,* 511-529.

Liew, J. (2012). Effortful control, executive functions, and education: Bringing self-regulatory and social-emotional competencies to the table.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6*, 105-111.

Liew, J., Eisenberg, N., & Reiser, M. (2004).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and negative emotionality, immediate reactions to disappointment, and quality of social functioning.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89,* 298-319.

Ma, F., Xu, F., Heyman, G. D., & Lee, K. (2011). Chinese children's evaluations of white lies: Weighing the consequences for recipient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08,* 308-321.

McDowell, D. J., O'Neil, R., & Parke, R. D. (2000). Display rule application in disappointing situation and children's emotional reactivity: Relations with social competence. *Merrill- Palmer Quarterly*, *46*, 306-322.

Murray, K. T., & Kochanska, G. (2002). Effortful control: Factor structure and relation to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 503-514.

Nigg, J. T., Goldsmith, H. H., & Sachek, J. (2004). Temperament an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The development of a multiple pathway model.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3,* 42-53,

Olson, S. L., Sameroff, A. J., Kerr, D. C. R., Lopez, N. L., & Wellman, H. M. (2005). Developmental foundation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young children: The role of effortful contro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7*, 25-45.

Popliger, M., Talwar, V., & Crossman, A. (2011). Predictors of children's prosocial lie-telling: Motivation, socialization variables, and moral understanding.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10*, 373-392.

Putnam S. P., & Rothbart, M. K. (2006). Development of short and very short forms of the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7,* 103-113.

Rothbart, M. K. (2007). Temperament, development, and personalit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6*, 207-212.

Rothbart, M. K., Ahadi, S. A., Hershey, K. L., & Fisher, P. (2001). Investigations of temperament at three to seven years: The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Child Development, 72,* 1394-1408.

Rothbart, M. K., & Bates, J. E. (2006). Temperament. In W. Damon(Series Ed.), R. M. Lerner & N. Eisenberg (Vol.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99-166). New York: Wiley.

Rothbart, M. K., & Rueda, M. R. (2005). The development of effortful control. In U. Mayr, E. Awh, & S. W. Keele(Eds.), *Developing individuality in the human brain: A tribute to Michael I. Posner, M. I.* (pp.167-18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aarni, C. (1984). An observational study of children's attempts to monitor their exp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5,* 1504-1513.

Simonds. J., Kieras, J. E., Rueda. M. R., & Rothbart. M. K. (2007). Effortful control, executive attention, and emotional regulation in 7-10-year-old children. *Cognitive Development, 22,* 474-488.

Talwar, V., & Lee, K. (2002). Emergence of white-lie telling in children between 3 and 7 years of age. *Merrill-Palmer Quarterly, 48,* 160-181.

Talwar, V., Murphy, S. M., & Lee, K. (2007). White-lie telling in children for politeness purpos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1,* 1-11.

Tobin, R. M., & Graziano, W. G. (2011). The disappointing gift: Dispositional and situational moderators of emotional expression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10,* 227-240.

Tobin, R. M., Graziano, W. G., Vanman, E. J., & Tassinary, L. G. (2000). Personality, emotional experience, and efforts to control emo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656-.669.

Walper, S., & Valtin, R. (1992). Children's understanding of white lies. In W. Winter (Series Ed.), R. J. Watts, S. Ide, & K. Ehlich (Vol. Eds.), Politeness in language: Studies in history, theory, and practice (pp.231-251). *Trends in Linguistics: Studies and Monographs*, 59,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Williams, S. M., Kirmayer, M., Simon, T., & Talwar, V. (2013). Children's antisocial and prosocial lies to familiar and unfamiliar adult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2*, 430-438.

Zhou, Q., Chen, S. H., & Main, A. (2012).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the research on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executive function: A call for an integrated model of self-regulation.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6*, 112-121.

1차원고접수 : 2014. 01. 15.
수정원고접수 : 2014. 03. 08.
최종게재결정 : 2014. 03. 10.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14, Vol. 27, No. 1, 1-18

Differences in Preschool Children's Prosocial Lies by Age, Sex and Effortful Control

Hyun-Kyung Kang
Shindang Welfare Center

Young-shin Park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differences in prosocial lies by age, sex, and effortful control in eighty-six 3- to 6-year-old preschool children, their parents, and their teachers. Prosocial lies were evaluated using six stories. Children's effortful control was evaluated using three different measures: Kochanska's Battery for Assessing Effortful Control as well as both parents' and teachers' ratings on the Child Behavior Questionnaire. Age and sex differences were observed. Prosocial lies increased with age, particularly at age five and six. Girls tended to tell more prosocial lies than boys for events related to the elderly and friends.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s measured by Kochanska's battery and teachers' rating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rosocial lies. However, after controlling for age i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three measures of effortful control did not predict children's prosocial lies. However, when the effects of the subscales of the three measures were examined, mothers' rating of low intensity pleasure and perceptual sensitivity significantly predicted children's prosocial lies even after controlling for age.

Key words : prosocial lies, effortful control, Kochanska's Battery, child behavior questionnaire(CBQ), preschool children